

WALL STREET JOURNAL

Flush With Excitement, Suwon Gloats About a True Rest Room

유쾌하고 만족스런 수원화장실

리porter 미첼 슈만(Michael Schuman) & 최해원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1999년 11월 29일자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수원화장실에 대한 기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유서깊은 성벽 아래 삼 사십명의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관광가이드는 메가폰으로 '오늘 우리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며 잘 디자인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화장실을 관광할 것입니다.'라며 큰소리로 외친다. 관광객들은 한국 전통의 정자양식인 경사진 목조 지붕으로 된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따뜻하게 데워진 변기의자에 앉아 보고 세면대를 살펴보고 사진을 촬영한다. 각 화장실 문에는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엘리트 시민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주변에는 바이올린 음악이 흐르고 한국의 시골 풍경들이 담긴 액자들이 걸려있다. 수원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며 공중화장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매주 이와 같은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누가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 화장실에는 부케로 된 꽃(인조꽃 포함)과 자동 수도꼭지, 장애인들을 위한 자동문,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이 설치되어 있다. 스피커로는 비발디의 사계, 한국

궁중음악, 자연의 새소리 등이 흘러나온다. 시청 내 6명으로 구성된 화장실 문화팀은 3년 동안 380만 달러를 들여 580여개의 화장실을 개축하고 6개의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또한 205개소를 더 개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화장실은 너무 깨끗하여 사람들이 안에서 차를 마십니다.' 전 세무과장이며 현재는 청소행정과장인 최승택씨의 말이다. 더 나은 화장실을 지으려는 노력은 IMF 경제위기 조차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새로이 부유해진 한국사회의 단면과 세계로부터 인정받고자, 세계를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화장실 수준을 세계화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최과장은 말한다. 장성섭계장은 이에 덧붙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한다. 으뜸 화장실만들기 운동은 60세의 심재덕 시장의 독창적인 생각이였다.

수원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며 공중화장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매주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따뜻하게 대워진 변기의자, 자동 수도꼭지,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등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배어있다.

1996년 심재덕 시장은 일본과 함께 개최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회담을 가졌었다. 이 회담 중 "수원의 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가자중 한 사람의 가벼운 제안을 듣고 곧바로 온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라고 심시장은 회상했다. 그는 지난 주에 수원시내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던 것을 떠올리며 경험한 중에 가장 더럽고 불쾌한 광경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 당시 심시장은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고자로비활동을 벌이던 때였다. 그리고 그는 외국 축구팬들이 지역시설을 이용할 때 비슷하게 역겨울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 총 간부회의를 열어 수원시의 모든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시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화장실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에 시장은 화장실문화계를 신설하며 '국민들이 진정한 문화시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화장실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간부 직원들은 처음에 심시장의 화장실 개선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지난해에 화장실담당을 맡은 장계장도 처음에는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원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THE WALL STREET JOURNAL

VOL. XXIV NO. 64 MONDAY, NOVEMBER 11, 1999 Dow Jones & Company

Flush With Excitement, Suwon Gloats About a True Rest Room

By MICHAEL SCHUMAN
And HAE WON CHOI
Staff Reporters

SUWON, South Korea — Beneath the walls of an old fort, a guide gathers three dozen tourists and bellows through a bullhorn: "Today, we will tour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well-designed bathrooms; facilities that can't be seen anywhere else in the country."

The tourists crowd into a public restroom inside a building with the sloping wooden roof of a traditional Korean pavilion. They try out the heated toilet seats, examine the sinks and take pictures. On each stall door, a sign reads: "You are the elite citizens who are using the world's best bathroom." Violin music plays in the background, and small paintings of the Korean countryside hang on the walls.

The city of Suwon is so proud of its public toilets that it gives a weekly tour to show them off — and who can blame it? The facilities have bouquets of flowers — both fake and genuine — automatic faucets, sliding stall doors for the disabled and solar-powered heat. Speakers pipe in Vivaldi's "Four Seasons." Korean palace

music or recordings of chirping birds. The Toilet Cultural Division, a six-person office at city hall, has spent three years and \$3.8 million renovating 580 restrooms throughout the city and building six new ones. And, it plans to fix up 205 more.

"Some bathrooms are so clean that people go in and have tea," says Choi Sung Duk, the former tax officer who heads the Toilet Cultural Division.

The drive to build a better bathroom shows an aspect of the newly affluent South Korean society that even the recent economic crisis wasn't able to blunt: a desire to be admired by — and perhaps surpass — the rest of the world.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it is important to globalize bathroom standards," says Mr. Choi. Adds a colleague, Chang Sung Sup, "It is important to become the leader in the world in the cleanest bathrooms."

The best-bathroom campaign is the brainchild of Suwon's 60-year-old mayor, Sim Jae Duck. In 1996, Mr. Sim attended a meeting of officials from around the country to discuss the 2002 World Cup of soccer, which South Korea will co-host with Japan. At the meeting, an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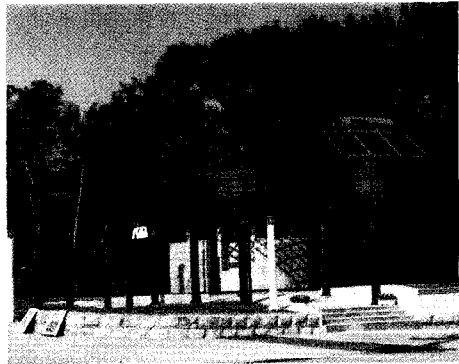
A public toilet in Suwon

Please Turn to Page 11, Column 5

최고의 음악

처음에는 화장실중 몇몇 시설은 지면에 구덩이를 파 놓은 정도였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었다. 화장실문화 담당팀은 문제점을 해결하며 개선을 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직원들은 화장실 주위를 돌며 이용자들에게 휴지걸이의 적당한 높이부터 화장실에서 듣기 좋은 음악 선정에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최 과장팀은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영국으로 공중화장실을 견학하였다.

또한 으뜸화장실 콘테스트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매달 화장실 문화팀의 직원들이 후보로 올리면 예술가, 건축가, 환경전문가, 디자이너들이 시의 화장실을 평가하고 가장 잘 된 화장실을 심사하여 상패를 받을 우수화장실을 뽑는다. 우수화장실 중에는 식당같은 개인 화장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시의 웹 사이트에 오 르 게 되 며



관광지에도 소개된다. 심시장은 한국 화장실 문화 협의 회를 설립 하였다. 협의 회에서는 정부기관으로 발송하는 월간지를 통하여 깨끗함을 널리 전도하고 있다. 인구 896,000명의 수원에는 문화 화장실의 비법을 배우고자 다른 도시에서 공무원들이 방문하고 있다.

성난(?) 아우성

2시간 30분동안 4개의 화장실 관광에는 서장대와 현충탑도 잠시 들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유산과 현대인의 삶을 함께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관광 가이드는 이야기 한다. 최근 업무개선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직원들이 포함된 관광그룹이 있었는데 방문이 예정된 화장실중 한 곳이 개축으로 인하여 닫혀져 있었다. 방문객중 몇몇은 '우리는 화장실을 보러 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깨끗함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까 해서 서울에서 한시간 정도 남쪽의 수원으로 관광은 청사 관리자들도 5명 있었다. 그중 서길자씨는 공기청정기의 중요성을 배우고 회사로 돌아가 쾌적한 시설에 더 비용을 쓰도록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 안내자는 관광객들을 공원 가까이

◀ 웰스트리트저널이 수원의 '반딧불이 화장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Flush With Excitement, Suwon Gloats About a True Rest Room

Continued From First Page
participant casually suggested the mayor should think about fixing up Suwon's bathrooms.

"Instantly, my whole body shivered," Mr. Sim recalls. He remembered a public toilet he had used in the city the previous week. It was, he says, "one of the most filthy and unpleasant scenes I have ever seen." At the time, the mayor was lobbying to get Suwon designated as a host city for some of the World Cup games - which it later was - and he feared foreign soccer fans would react to the local facilities with similar disgust.

The next day, Mr. Sim called a meeting of the chiefs of every city-hall department. Renovation of public restrooms in Suwon is now the world's best, he told them, was to be the city's top priority. The bathrooms, he decreed, should be places where people could read, listen to music and relax. Later, in 1997, he set up the Toilet Cultural Division. "For the people of a country to be truly cultured, they need to start by knowing the importance of having clean public bathrooms," he says.

The staff was sometimes slow to catch Mayor Sim's enthusiasm. "I thought working at such a department was not a positive thing for my future," says Mr. Chang, who joined the toilet division last year. But he quickly realized he could do the city proud. "Whoever comes to Suwon can have a feeling of happiness, especially when going into the public bathrooms," he says.

Best Music

In the beginning, Suwon's facilities, some of them little more than holes in the ground, were nothing to brag about. The Toilet Cultural Division passed out questionnaires and held public symposiums to improve them. Its staff lobbied for side restrooms, acousting patrons for hanging toilet paper to the best music for lavatory listening. Mr. Choi's team visited public toilets in Japan, Germany, France, Switzerland and the U.K.

The agency also tries to get the private sector involved through a "best bathroom competition." Each month, a team of

artists, architects, environmentalists and designers evaluate the city's bathrooms and nominate their favorites. Then, Mr. Choi's staff inspects them and picks a winner, which receives a plaque from city hall. The winners, some of which have been private establishments such as restaurants, are posted on the city's Web site and listed in travel literature.

Suwon's bathrooms have received national attention. Mayor Sim founded the Korea Clear Toilet Association, which spreads the gospel of cleanliness through a monthly newsletter sent to government offices. And officials from other Korean cities are visiting Suwon, population 896,000, to learn its secrets.

Angry Pro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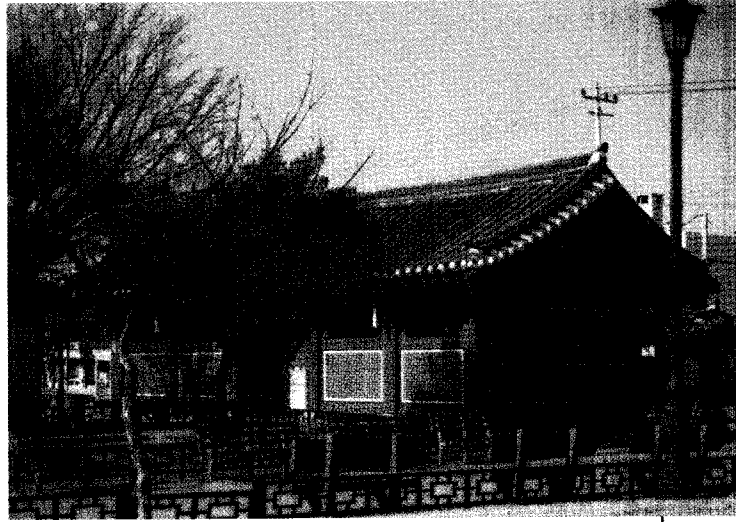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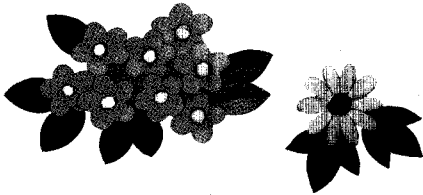
The four-bathroom, 24-hour tour, which also includes brief stops at a fort tower and a Korean War memorial, "is the best way to show our cultural heritage and our modern living," says a tour guide.

On a recent day, a group of bathroom tourists includes employees of construction companies who are polishing up their trade. One of the scheduled bathroom closings was closed to renovation, sparking an angry protest from some of them.

"We came to see the toilets," one of the guides says. "Five of the sightseers are middle-aged janitors at a Seoul office building who took the hourlong trip south to Suwon to pick up cleaning tips. One of them, Sun Kil Cha, says she learned the importance of air fresheners and plans to urge her company to spend more on this amenity."

Near a park, the tour guide ushers the group into a restroom that won an award for being "the most beautiful bathroom in Korea." Ms. Sun and her fellow janitors gasp in awe. They flush every toilet, lock every stall door, try every sink and practice using an automatic personal-cleaning mechanism on the toilets. "If I could work at a place like this, I would be happy to go to work," says Ms. Sun. She and her colleagues find the woman who cleans that bathroom sitting in front of the janitor's room. "I envy you," Ms. Sun tells her.

위치한 한국에서 가장 으뜸인 화장실로 인도하였다. 서씨와 동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일일이 화장실 물을 내려보고 문을 잠가보고 세면대를 사용하며, 화장실의 자동개인 세척기(비데)를 연습하였다. 서씨는 '내가 이런 곳에서 근무한다면 일하러 가는 것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서씨와 동료들은 관리실 앞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부럽다며 말했다.



▲ 수원의 장안공원에 있는 화장실,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외관과 파우더 룸, 베이비 시터등이 설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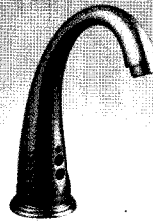
한국 바토아의 제품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BABY KARE BK-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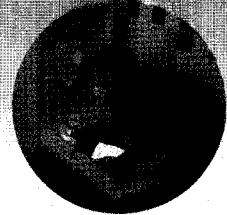
자동밸브 BH-2101



자동밸브 BH-2102



자동밸브 BP-2311



BABY KARE BK-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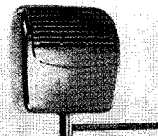
로션발비데 BV-2203



센트 드라이어 BP-2500



장애인을 아크릴거울
경사 15°



BADOC발취기 BP-2311



2단발취기 BP-2400

Tel.(02)824-3232 화장실의 모든 정보는 <http://www.toilet114.co.kr>